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 14 - 25호 / 2026년 07월 27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정몽원 회장이 직접 답해야 할 이유!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우리의 일터에서 29살 노동자가 사망한 지 벌써 5일째입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사망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회사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현재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장례식은 진상조사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자료 은폐 중단하라” ... 수사 결과에 쏠린 눈

사고 이후 대응 과정을 둘러싼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 (중략) ~ HL만도는 현재 조성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현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중략)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HL만도의 원청 책임과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출처 : 7/24일자 PPSS (<https://www.ppss.kr>) 언론기사 인용)

■ 사람을 즐기고, 외주는 늘린 것은 경영진이 결정한 것!

지난 14년 동안 3번의 희망퇴직과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인해 1,200여명이 일터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기능직 신규채용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인력은 외주와 자동화로 대체하면서 현장의 안전 문제는 조금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 정몽원 회장, 대표이사과 총괄대표 뒤에 숨지 말아야!

이번 사고의 법적 책임은 관계기관의 수사과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총괄대표와 실무진에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성현 대표이사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몽원 회장이 전면 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조합,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요구!

- 긴급 안전점검, 인력 및 외주 문제 개선, 안전관리 체계 개편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내 설비의 안전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외주화와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철의노동자 제14 - 24호를 통해 평택지회의 노사합동 점검을 회사가 거부했다고 밝힌바 있으나, 지난 주 금요일 평택지회와 사업본부간 협의를 통해 27일(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보고 △작업중지 관련 △동일, 유사 설비 안전점검 △작업자 보호 대책 등입니다.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청장에게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요구!

지난 24일(금),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노안보위) 중심으로 만도지부가 결합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청장 면담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면담 과정에서 사고의 명확한 진상조사보다 형식적인 노동부 입장에 흥분한 노안보위 동지들의 격한 목소리가 평택지청에 울려 퍼졌고, 자칫 몸싸움까지 이어질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만도지부, 사측의 단협위반 사실 진정 및 고발 접수!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적정인력 유지를 무시한 사측의 무분별한 외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4년간 신규채용이 없었던 것에서 비롯된 인력부족의 문제가 설비 수리의 외주화로 이어졌고,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중대재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가 간부활동 보장을 포함해 단협을 위반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진정 및 고발장을 지청장에게 직접 접수시켰습니다.